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6.6(월) ~ 2022.6.10(금)

제공일시 2022 06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6.6(월) ~ 2022.6.10(금)

제공일시 2022 06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연료비 급등에...초과이윤세 걷고 재정지원 나선 국가들

- 세계적인 연료비 급등에 전력 도매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정부는 우선 한국전력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에 한달간 상한선을 두기로 했지만,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함
- 영국과 스페인, 독일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은 에너지 기업에 한시적으로 초과이윤세를 걷거나, 소비자들에게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 한국 전문가들은 영국, 스페인 등의 초과이윤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에서는 연료비 가격에 맞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경향신문, 2022.6.5) 박상영 기자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_general/article/20220605165301

2. 소비량 안 줄이면...“플라스틱 쓰레기’ 2060년엔 3배 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일 플라스틱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계속 생산·소비하면 2060년에는 지금보다 3배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쌓일 수 있다고 경고함
- 보고서는 신흥국 중에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6배, 아시아 국가들은 3배 더 늘 것으로 봤으며,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와 폴리에틸렌(PE) 등 고분자 플라스틱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
- 머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감축 방법으로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수요를 줄이고, 석유에 기반한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권장 정책은 플라스틱 포장 등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재사용과 수리해 쓰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생산자 책임(EPR) 체계 확장, 폐기물 관리 인프라 개선 등이 있음

(한겨레, 2022.6.5) 최우리 기자
<https://www.han.co.kr/economy/marketing/20220605165301>

3. ‘대세’ 선박 연료 LNG...탄소 규제로 입지 좁아지나

-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징검다리’ 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가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LNG의 입지가 예상보다 빠르게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옴
- 유럽의회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해운산업에 대한 ETS(탄소배출권 거래제) 적용안을 표결하는데, 해운사 특히 LNG추진선도 탄소배출권을 사야 함. 2035년 이후 EU 역내에서 LNG추진선 운항 금지 입법초안도 발표된 바 있음
- 문제는 아직 LNG 외에 수소, 배터리, 암모니아 등의 대체 연료가 상용화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에 선사들의 행보도 엇갈리는 상황

(조선비즈, 2022.6.3) 권오은 기자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6/03/LLN0Q0FVFC3F38P0F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utm_campaign=bizmedumorigin&utm_campaign=biz

1. EU, 2026년 중반까지 여성 이사회 쿼터 설정

- 유럽연합(EU)이 4억5000만명의 인구집단 대표성을 높이고 양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 최초의 이사회 여성쿼터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 27개 EU 회원국의 상장기업은 2026년 중반까지 여성이 비상임이사직의 최소 40%를 차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상임과 비상임이사를 합친 33%에 해당됨
- 또 EU는 최저임금에 대한 공통규칙을 제시하는 법안 초안에 합의했음. 이는 임금불평등과 노동 빈곤을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 EU각국의 현행 법정 최저임금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해야 함

(Reuters, 2022.6.8) Gabriela Baczynska 기자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u-set-introduce-quoter-women-company-boards-board-equality-2022-06-07/>

(Reuters, 2022.6.9) Sabine Siebold 기자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eu-law-point-standards-minimum-wages-eu-passes-outside-lux-2022-06-07/>

2. 유럽의회, 2035년 내연기관 탑재 신차 판매 금지... CO2 배출 100% 감소

- 유럽의회는 8일(현지시간), 전기자동차의 더 빠른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와의 싸움을 강화하기 위해, 2035년 내연기관을 탑재한 신차 판매를 금지함
- 이날 스트라스부르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00% 줄일 것을 요구하는 안을 가결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나 경유로 구동되는 신차 판매가 금지됨
- 또 EU 의원들은 2030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양을 2021년보다 55% 감축하는 안을 승인하여 자동차업계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평균 37.5%까지 줄여야 하는 기존 의무가 심화됨

(뉴시스, 2022.6.9) 유세진 기자
https://news.yna.co.kr/view/PAN20220609_0000000284_010004010000

3. EU, 탄소시장 개혁 법안 부결

- 8일 유럽연합(EU)의 탄소시장 업그레이드 제안이 부결되어 주목을 받고 있음
- 이는 EU의 핵심적인 기후정책과 관련해, 엄청난 로비가 펼쳐졌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의견이 분열됐기 때문으로 보임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또한 부결돼, 2023년에 적용하려 했던 기간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EU의 ETS 개혁안 또한 운송과 건축 등의 개혁에 대한 반대가 커지면서, EU 환경위원장은 6월 23일까지 새로운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Reuters, 2022.6.9) Kate Abnett 기자
<http://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eu-lawmakers-reject-carbon-market-reforms-divisive-climate-vote-2022-06-08/>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6.6(월) ~ 2022.6.10(금)

제공일시 2022 06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영국 금융감독원, '크레디트 스위스' 특별 감시하기로

- 영국 금융감독원(FCA)이 "고위급 관리자가 특별 감시·감독하는 기업 대상 리스트에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를 포함시켰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

(Financial Times, 2022.6.13)
<https://www.ft.com/content/42b2b5c7-468b-4b05-8289-923e>

(Reuters, 2022.6.13)

<https://www.reuters.com/business/uk/credit-suisse-will-face-supervision-ft-2022-06-12>

-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감독업무 책임을 갖고,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공정성 ▲경쟁 제고 역할을 수행하는 FCA는 현재 약 6만여개의 금융사의 영업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있음. 이 6만여 개 금융사 중 20여개 업체는 불건전성의 계속된 의심으로 특별 감시 대상에 올라, 고위급 관리자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이 특별 감시 대상에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최근 포함된 것

- 크레디트 스위스가 최종적으로 특별 감시 대상에 올라간 이유는 지난해 10월 모잠비크 참치 채권(tuna bonds) 스캔들로 영국 FCA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4억7500만 달러(6103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던 데 있음

-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크레디트 스위스는 모잠비크 국영 사업인 '참치어업 프로젝트'에 20억 달러(2조5700억원) 자금을 운용한 바 있음. 당시, 크레디트 스위스는 어업 생산 증진과 경제 성장을 골자로 미국 및 영국 투자자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았고, 운용 금액은 전적으로 모잠비크 참치 생산과 관련 시장 개발에 쓰인다고 투자자에게 공시했음

- 하지만 일부 투자금이 모잠비크 고위급 공무원 뇌물로 전용되는 등 투자 자금 오용 사실이 규제 당국 조사를 통해 드러나게 됨. 미국 법무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크레디트 스위스는 자회사인 CSSEL(Credit Suisse Securities(Europe) Limited)에 5천만 달러(642억원)의 리베이트를 진행했으며, 모잠비크 고위 공무원들에게 1억5000만 달러(1972억원)의 뇌물을 지급

- 크레디트 스위스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해 10월 4억 7500만 달러 벌금 부과와 함께 피해자 배상에 협의함

- 이 같은 참치 스캔들로 FCA 등 금융 규제당국으로부터 불건전성을 의심받기 시작한 크레디트 스위스는 그린실 캐피탈(Greensill Capital) 투자 펀드 중단 사건으로 특별 감시망에 오르게 됨. 시티그룹과 모건 스탠리 출신의 금융 전문가 렉스 그린실(Lex Greensill)이 2011년 설립한 그린실 캐피탈은 단기자금을 선불 지급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공급망 금융(SCF)에 특화된 스타트업임

- 공급망 금융이란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 생산 및 유통, 최종 판매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이고 빠르게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를 가리킴

- 그런데 그린실 캐피탈의 주주였던 산지브 굽타(Sanjeev Gupta)가 그린실의 부실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해 보도하자, 그린실 캐피탈 투자 펀드에 활발히 거래해왔던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4개 투자 펀드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 당시 크레디트 스위스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거래 중단 이유로 "그린실 자산 일부 가치가 상당한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

- 크레디트 스위스가 불확실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100억 달러(12조8500억원) 규모의 투자 펀드 거래를 하루 아침에 중단했지만,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크레디트 스위스는 펀드가 지급불능 상태에 놓이면 투자 손실을 보장해준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면피하기 위해 거래 중단에 서둘렀던 것. 이 여파로 그린실 캐피탈은 파산에 직면했고, 이 사건에 대해 일부 투자 전문가는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분석하기도 함
- 이 같이 불건전하고 이기적인 영업행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FCA가 고위급 관리자를 통해 면밀히 감독 및 감시하겠다고 밝히며, 특별 대상 리스트에 크레디트 스위스를 포함시킨 것. 더불어, FCA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자사의 이사회, 리스크 및 감사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올해 하반기까지 검토해달라고 요청